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5:40 헬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2014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뉴스 특보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닝생활제(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바른말 고요말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빅맨>(재)	00 MBC 여성토크 유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먹방소 맛의 전설(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12뉴스 30 KBS 월간토론회(재)
1 30 뉴스 특급	00 TV 고아라 50 콘서트 필(재)		10 MBC네트워크 특선 파발마 조선을 달리는 자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
2 40 직업인식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다큐멘터리 3일(재)	05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뼈아픈 놀자 55 TV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키즈 만들어볼까? 뚝딱(재)	0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4 40 캐도남마	00 시사진단 55 튜닝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케라투스 코리아 55 법상의 신(재)	30 푹? 푹! 키즈스쿨	00 매일연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로 놀자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 베스트	05 날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갈 때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천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할기운 말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 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빅맨>	00 월화 드라마 <트라이앵글>	00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
11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쿠드라마 싸인(재) 1:20 부부극장 공작(재)	30 문화 책잡기 1:10 T타임 40 알약특독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	25 MBC 뉴스24 45 스포츠하이라이트 1:00 스포츠특선 캐센터	35 나이트 라인 1:05 SBS 골프



박유천·김재중 등 연기력 호평 이어져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의 1~2회에서 김재중은 극의 몰입도를 리드하며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극 중 카지노 '쫄지'들의 풍운 사채를 대신 받아주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허영달'로 분한 그는 웃음을 벗고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불륜녀(김혜는 분)에게 '침대 셀카'를 미끼로 돈을 뜯으면서도 모텔에서는 진한 키스를 나누고, 애정 행각이 들끓는 팬티 바람으로 거리를 달리는 등 아이돌 가수로는 과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양아치 족에 못 끼는 쓰레기'인 허영달이 두목의 비자금을 훔칠 때의 희열에 찬 모습, 불법 사채 카지노에서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남길 때의 불안한 눈빛은 전작인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닥터 진'에선 볼 수 없던 호연이었다. '트라이앵글'의 홈페이지가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재중의 변화가 대단하다. 순간순간의 표정 변화가 뚜렷해서 몰입하며 볼 수 있다', '김재중의 재발견',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변신 제대로 한 것 같다'란 호평이 이어졌다. 바야흐로 '연기돌' 전성시대다.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들이 안방극장에서 만개했다.

연기로 손에 꼽혔다. 그로 인해 선배 배우들은 아이돌 가수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역할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가르침을 흡수하는 열성과 재능이 있다는 것이다. 김재중은 최근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서 "요즘은 멀티 시대다. 연기나 노래 하나만 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 아이돌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한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많이 받더라. 전작인 '황금무지개'에서 유이를 봤을 때 배우 못지않은 프로 근성이 있는 걸 보고 칭찬했다"고 말했다. '쓰리데이즈'의 손현주는 박유천에 대해 "실제로 보니 정말 성실하더라. 아니, 성실을 넘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며 "약속도 잘 지키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는다. '순수의 힘'이 있다. '통련'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범수도 '트라이앵글' 제작발표회에서 김재중에 대해 "다 터진 때 함께 출연하며 김재중의 성실한 모습이 기억에 진하게 남았다"며 "김재중의 '날 것' 같은 생생한 연기, 눈빛이 배우로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아이돌 연기자에 대한 편견이 과거보다 희석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간 일부 아이돌 가수들은 연기자로 변신하며 어색한 연기로 극의 흐름을 깨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줄어들던 건 기획사가 아이돌 그룹을 육성할 때부터 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아이돌 가수들도 데뷔 때부터 연기에 대한 욕심을 가져 성실도가 높다는 점이 작용했다. '신의 선물-14일'에서 꽃병 출신 역에 도전해 호평받은 한선화도 직접 몸도형을 찾아 캐리커를 연구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장면도 대역 없이 소화하는 등 재능과 성실성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EBS		
05:40 나의 성공비결	09:40 부모 <아이를 위한 식단>	14:30 부릉! 부릉! 브루이즈
06:10 EBS 특별기획(재)	10:10 EBS 문화 센터	14:45 미연마이로봇
07:00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07:15 올리비아의 오아시스(재)	11:20 세계테마기행 <발칸반도>(재)	15:15 포피와 친구들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부(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모여라! 당동맹 스페셜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00 당동맹 유치원(재)
08:00 당동맹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08:20 두다다(재)	13:10 줄거은 수학 EBS MATH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20 와글와글 친구들	16:45 꿈디와 친구들(재)
08:50 꿈디와 친구들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45 치로와 친구들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부
09:20 부릉! 부릉! 브루이즈(재)	14:00 헬로 코코몽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35 뽀뽀이	14:15 시계마을 티기톡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19:30 EBS 뉴스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용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순다열도>
		21:30 한국기행 <외서버선길>
		21:50 EBS 다크프라이데이 <아버지의 성>
		22:35 달라졌어요
		23:4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문학 3>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특별기획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01:00 EBS 걸작다큐멘터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알차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점왕 <국어 3-1>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07:30 나의 성공비결	15:40 " <국어 4-1>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 <수학 II>	08:00 정보보안산업기사시험	16:20 " <국어 5-1>
02:30 " <수학 I A형>	14:00 " <국어 A형>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6:40 " <국어 6-1>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전과목 5-1>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9:10 TV 중학 <국어 1②>	18:00 TV 중학 <문학 3>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9:50 " <수학 1(상)>	18:40 " <비문학 3>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10:30 " <역사 1>	19:20 배움 플러스
06:40 암탐탐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11:10 " <국어 3④>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11:50 " <수학 2(상)>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2:30 등업신공 <수학 1(상)>	20:40 " <영어>
09:10 " <수학 I>(재)	21:00 " <한국사>(재)	13:10 " <수학 2(상)>	21:20 " <과학>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회법과 작문>특독의 문법 A형	13:50 " <과학 2(상)>	22:00 " <수학>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14:30 " <수학 2(상)>(재)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2일(음 4월 14일 癸未)
36년생 노파심은 떨쳐 버려도 되느니라. 48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60년생 안도의 숨을 쉬겠다. 72년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84년생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6, 11	42년생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54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66년생 기급적 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78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17
37년생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49년생 영예를 안거나 큰 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 61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무난하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대세는 기울었다. 85년생 충분한 시일을 확보하자. 행운의 숫자 : 88, 95	43년생 특별함이 없다면 대중소이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55년생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67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진보하게 되느니라. 79년생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53, 60
38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에 불과하리라. 50년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미련을 버리고 빨리 접어야 할 판국이 되었다. 74년생 부가적 이익이 상당히 크다. 행운의 숫자 : 52, 44	44년생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분명해 있느니라. 56년생 점점 세분화 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띤다. 68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진 이의 재물이 있었다. 80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 방향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91
39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51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63년생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75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75	45년생 표면은 대중소이하나 깊은 뜻이 다르다. 57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자신을 얽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69년생 물심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희망적이고 알차게 진행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3, 85
40년생 집착하고 있다면 시간까지 소비하는 셈이다. 52년생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이 절실할 때이다. 64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76년생 본분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낫다. 행운의 숫자 : 66, 47	46년생 합리적인 조치들이 절실 한 때이다. 58년생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못 미친 것이 더 낫다. 70년생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2, 33
41년생 적절한 언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3년생 감수하고 있노라니 머지않아 변천 되겠다. 65년생 이미 던져진 주사 위이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77년생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기쁨이 마련되리라. 행운의 숫자 : 04, 23	47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바하다. 59년생 터진 곳을 봉합하고 빈 곳을 채워 줘야겠다. 71년생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화합이 낫다. 83년생 한결 가까이만 인정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0,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안방극장 '연기돌'이 접수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의 1~2회에서 김재중은 극의 몰입도를 리드하며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극 중 카지노 '쫄지'들의 풍운 사채를 대신 받아주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허영달'로 분한 그는 웃음을 벗고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불륜녀(김혜는 분)에게 '침대 셀카'를 미끼로 돈을 뜯으면서도 모텔에서는 진한 키스를 나누고, 애정 행각이 들끓는 팬티 바람으로 거리를 달리는 등 아이돌 가수로는 과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양아치 족에 못 끼는 쓰레기'인 허영달이 두목의 비자금을 훔칠 때의 희열에 찬 모습, 불법 사채 카지노에서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남길 때의 불안한 눈빛은 전작인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닥터 진'에선 볼 수 없던 호연이었다. '트라이앵글'의 홈페이지가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재중의 변화가 대단하다. 순간순간의 표정 변화가 뚜렷해서 몰입하며 볼 수 있다', '김재중의 재발견',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변신 제대로 한 것 같다'란 호평이 이어졌다. 바야흐로 '연기돌' 전성시대다.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들이 안방극장에서 만개했다.

연기로 손에 꼽혔다. 그로 인해 선배 배우들은 아이돌 가수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역할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가르침을 흡수하는 열성과 재능이 있다는 것이다. 김재중은 최근 '개과천선' 제작발표회에서 "요즘은 멀티 시대다. 연기나 노래 하나만 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 아이돌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한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많이 받더라. 전작인 '황금무지개'에서 유이를 봤을 때 배우 못지않은 프로 근성이 있는 걸 보고 칭찬했다"고 말했다. '쓰리데이즈'의 손현주는 박유천에 대해 "실제로 보니 정말 성실하더라. 아니, 성실을 넘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며 "약속도 잘 지키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는다. '순수의 힘'이 있다. '통련'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범수도 '트라이앵글' 제작발표회에서 김재중에 대해 "다 터진 때 함께 출연하며 김재중의 성실한 모습이 기억에 진하게 남았다"며 "김재중의 '날 것' 같은 생생한 연기, 눈빛이 배우로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아이돌 연기자에 대한 편견이 과거보다 희석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간 일부 아이돌 가수들은 연기자로 변신하며 어색한 연기로 극의 흐름을 깨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줄어들던 건 기획사가 아이돌 그룹을 육성할 때부터 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아이돌 가수들도 데뷔 때부터 연기에 대한 욕심을 가져 성실도가 높다는 점이 작용했다. '신의 선물-14일'에서 꽃병 출신 역에 도전해 호평받은 한선화도 직접 몸도형을 찾아 캐리커를 연구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장면도 대역 없이 소화하는 등 재능과 성실성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인상적인 한 장면...주연 잡는 카리스마

영화 '표적' 비리 경찰 송 경감 역 유준상



류승룡 주연의 영화 '표적'에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비중이 커지는 인물이 있다. 초반 50분까지는 거의 한 장면밖에 나오지 않지만, 끝으로 치달을수록 류승룡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뽐내며 극에 긴장감을 불러넣는 캐릭터다. 비리 경찰 송 경감 역을 맡은 배우 유준상(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탄탄한 드라마로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그는 애초 영화에 출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뮤지컬·영화배우·드라마·가수·작곡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느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표적'의 대본을 받을 때도 외국에 있었다. "초반에 한 컷밖에 분량이 없어서 고사"했으나 극 중 너무나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자꾸 그의 마음에 맴돌았다. 여기에 삼고초려에 가까운 제작진의 끊임없는 구애가 있었다. "촬영장에서는 류승룡 씨와 연속한 분위기 속에서 액션 장면을 찍었어요. 찍기 전에 말도 안 하고 감정을 다스렸죠. 밤을 새우며 찍었는데, 감독님이 저희 둘이 등장하는 액션 장면이 마음에 든다며 계속 롱테이크로 갔어요. 결국, 거의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죠. 옆 사람들이 저를 두고 진짜로 많이 맞은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몸은 있는데 영혼은 어디로 날아가듯, 그런 느낌이 들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연합뉴스

지오디·정기고 '이단옆차기' 곡으로 1위 경쟁

<작사·작곡>

그룹 지오디(god)의 신곡 '미운오리새끼'와 정기고의 신곡 '너를 위해'가 9일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양분했다. 지난 8일 공개된 '미운오리새끼'가 발매 당일 10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쓴 가운데 9일 '너를 위해'가 출시되면서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너를 위해'는 이날(오후 6시30분 기준)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지니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멜론, 엠넷닷컴, 다음뮤직, 몽키3뮤직 등에선 '미운오리새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두 곡 모두 작곡팀 이단옆차기(박장근, 마이키)의 작품으로 두 팀은 당초 다른 시기에 신곡을 낼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일정이 바뀌면서 맞물리게 됐다. 이단옆차기는 '미운오리새끼'에 대해 "요즘의 트렌디한 멜로디 진행과 구성을 배제하고 내레이션에 가스펠 느낌을 넣어

지오디 특유의 따뜻한 음악 색을 표현했다"며 "멤버들이 새벽까지 의견을 개진하면서 열의를 보였다. 심지어 윤계사 씨는 미싱이 끝난 뒤에도 아쉽다고 다시 녹음해 출시 직전까지 음원을 작업했다"고 말했다. 또 '너를 위해'에 대해서는 "알앤비(R&B) 풍의 미디움 템포 곡"이라며 "알앤비 특유의 밀고 당기는 리듬감을 살려 감미로운 정기고의 보컬이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랩 피처링을 한 번지도 써도 곡의 분위기에 맞게 랩 스타일을 바꿔 노래를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단옆차기는 올해 걸스데이의 '섬섬'과 에이핑크의 '미스터썬' 등의 히트곡을 냈다. 또 12일 출시되는 지나의 '예쁜 속옷'과 시크릿 전효성의 첫 솔로 싱글 타이틀곡 '굿나잇 키스', 20일 공개되는 티아라 지연의 첫 솔로 미니앨범 타이틀곡 '1분 1초'도 작업해 이단옆차기 무려 5곡을 선보이게 됐다. /연합뉴스